



Pulse of Fintech H2 2019

Extended Summary

March 2020

Contents

	Page
보고서 개요 및 방법론	2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3
섹터별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14
2020 핀테크 10대 트렌드	23
Spotlight on Fintech	25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성KPMG 경제연구원에서 한글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20/02/pulse-of-fintech-h2-2019.pdf>

보고서 개요 및 방법론

KPMG International은 전세계 핀테크 시장 내 주요 동향을 담은 보고서 'Pulse of Fintech H2 2019'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중동 및 남아시아(Middle East & South Asia), 아프리카 지역은 포함하지 않았고, 보고서 상 기본 데이터는 2020년 1월 17일 기준 PitchBook을 통해 추출·분석하였으며, 투자 유형과 상관없이 완료(Completed)된 투자 거래만을 집계하였습니다.

“

핀테크 업계는
2019년에도
전세계적으로
1,357억 달러 이상의
높은 투자 수준을
유지하였음

”

핀테크 업계는 2018년 대규모 투자 유치에 이어, 2019년에도 여전히 높은 투자 수준을 유지하며 M&A, PE, VC 등 전세계적으로 1,357억 달러의 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핀테크 관련 총 투자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성숙 단계에 접어든 핀테크 기업들이 메가 딜(Mega Deal) 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핀테크 관련 VC 거래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M&A도 3분기 투자금액이 668.5억 달러를 기록하여, 분기 투자규모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2019년 중 핀테크 투자가 강세를 보인 반면, 아시아에서는 2018년에 비해 투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지급결제는 여전히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였으며, 프롭테크과 인슈테크 투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투자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레그테크는 사상 최대치의 투자건수를 기록하였고, 사이버 보안·블록체인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분야입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려는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도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2019년 글로벌 핀테크 산업에서는 2,693건의 딜에 1,357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되어 2018년 실적에는 약간 미치지 못했습니다.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의 World Pay(425억 달러) 인수와 Fiserv의 First Data(220억 달러) 인수가 전세계 총 투자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 대규모
핀테크 투자는
M&A에 집중됐으며,
핀테크 관련 M&A는
97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함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세계 핀테크 M&A

인도 Paytm의 17억 달러 펀딩을 제외하면, 2019년 대규모 핀테크 투자는 M&A에 집중됐으며, 핀테크 관련 M&A는 97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의 대형 M&A는 영국의 Worldpay, 미국의 First Data, Dun & Bradstreet, Assurance IQ 외에 에스토니아의 AliExchange, 프랑스의 eFront, 호주의 Property Exchange Australia, 이탈리아의 SIA 등이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북미·유럽은 펀딩 신기록 달성, 아시아는 과거 수준 유지

비록 유럽 투자규모의 절반 이상이 단일 거래인 Worldpay에서 이루어졌지만, 2019년에 북미(642억 달러)와 유럽(581억 달러) 모두 핀테크 관련 투자금액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아시아 지역(129억 달러)의 핀테크 투자는 2018년 2분기와 비교하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및
레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가 증가함



사이버 보안 이슈의 부상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9년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바이오메트릭스(Biometrics) 및 행동분석(Behavioral Analytics)을 포함한 혁신적인 고객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컴플라이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KYC) 및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수행에 있어 고급 데이터 분석(Advanced Data Management & Analytics)을 포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레그테크, 전체 투자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투자건수 기록

전세계 레그테크(Regtech) 투자건수는 핀테크 산업의 투자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핀테크

분야가 성숙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 레그테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인슈테크 분야
투자는 성숙 단계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었음”

최근 몇 년 동안 레그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유는 유럽에서 일반 개인정보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과 지급결제지침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 이 시행되고, 최근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전망에 따르면, 금융기간 내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규제환경 강화,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집중을 통해 레그테크는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슈테크, 투자건수의 큰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은 완만한 감소

투자자들이 양보단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서 인슈테크 (Insurtech) 분야에서 총 투자건수는 40% 가까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은 2018년과 2019년 사이 13%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프루덴셜 파이낸셜 (Prudential Financial) 이 35억 달러로 미국의 Assurance IQ 를 인수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Root Insurance 가 3억 5,000만 달러, Next Insurance 가 2억 5,000만 달러, Hippo Insurance 가 1억 달러를 유치하는 등 인슈테크는 2019년 하반기 동안 대규모 글로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VC 투자자가 검증된 회사를 중시하는 추세로, 2019년 인슈테크 분야 투자는 후기 단계의 인슈테크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
프롭테크 관련 AI
기반 부동산 자산
모니터링·자산관리
최적화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함”

인슈테크 관련 제휴 및 파트너십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Wrisk 는 RAC 와 협력하여 마일리지 기반 보험상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I 솔루션이 더욱 발전하고 널리 보급됨에 따라 온디맨드 (On-demand) 보험, 사이버 보안 및 보험 관련 레그테크,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슈테크 기업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롭테크, AI 기반 자산관리 최적화에 대한 투자 증가

부동산 자산 관리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롭테크 (Proptech) 는 2019년에 26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부동산 회사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AI 기반의 부동산 자산 모니터링 및 자산관리 최적화는 투자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갖은

분야였습니다. 디지털 전략·로드맵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려는 부동산 회사의 니즈가 커짐에 따라 프롭테크를 채택하는 회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대상, 웰스테크

웰스테크(Wealthtech)와 관련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초기보다는 후기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평가하고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수집·분석 분야가 올해 웰스테크 기업 부문 투자의 핵심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거래 건수가 현격히 감소

블록체인 관련 투자가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Libra) 출시를 발표하는 등 블록체인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록체인의 관심은 리브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말,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AliExchange는 FoPay에 의해 21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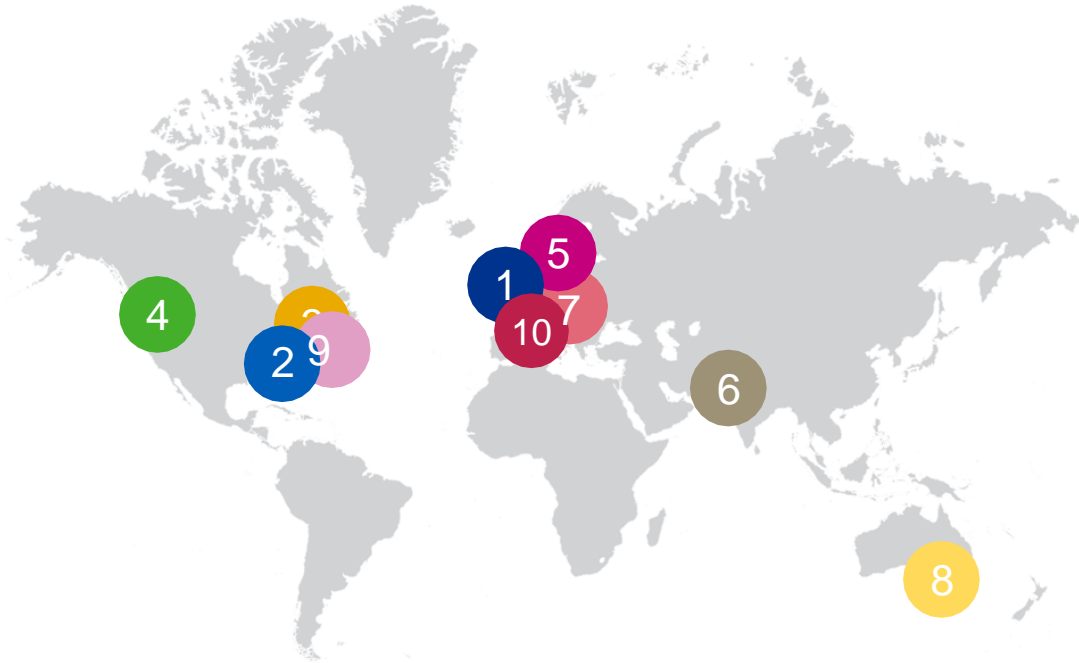
블록체인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은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나 무역금융(Trade Financing)과 같은 분야에서 적용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잠재력을 감안할 때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2020년까지 건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웰스테크 관련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블록체인 관련 투자건수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2019 글로벌 Top 10 핀테크 투자(VC, PE,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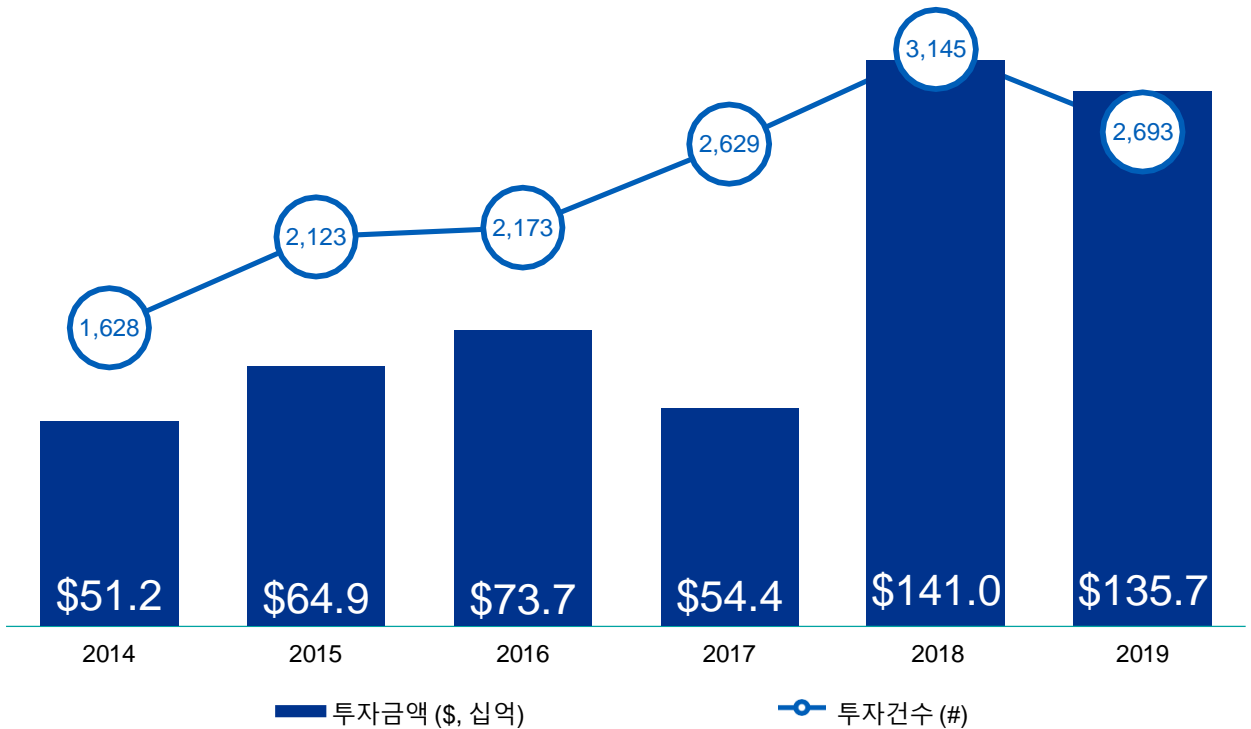


- 1 Worldpay 영국, 런던**
 - 기업 유형: 지급결제
 - Deal 가치: \$425억
 - Deal 유형: M&A
- 2 First Data 미국, 애틀랜타**
 - 기업 유형: 금융 B2B 서비스
 - Deal 가치: \$220억
 - Deal 유형: M&A
- 3 Dun & Bradstreet 미국, 뉴저지**
 - 기업 유형: 금융 B2B 서비스
 - Deal 가치: \$69억
 - Deal 유형: 지분인수
- 4 Assurance IQ 미국, 워싱턴**
 - 기업 유형: 인슈테크
 - Deal 가치: \$35억
 - Deal 유형: M&A
- 5 AliExchange 에스토니아, 탈린**
 - 기업 유형: 자본/암호화폐
 - Deal 가치: 21억 달러
 - Deal 유형: M&A
- 6 Paytm 인도, 노이다**
 - 기업 유형: 지급결제
 - Deal 가치: 17억 달러
 - Deal 유형: Series G
- 7 eFront (France) 프랑스, 파리**
 - 기업 유형: 금융 B2B 서비스
 - Deal 가치: 13억 달러
 - Deal 유형: 지분인수
- 8 Property Exchange Australia 호주, 멜버른**
 - 기업 유형: 프롭테크
 - Deal 가치: 12억 달러
 - Deal 유형: M&A
- 9 Investment Technology Group 미국, 뉴욕**
 - 기업 유형: 자본
 - Deal 가치: 10억 달러
 - Deal 유형: M&A
- 10 SIA (Milan) 이탈리아, 밀란**
 - 기업 유형: 금융 B2B 서비스
 - Deal 가치: 8.9억 달러
 - Deal 유형: 지분인수

[글로벌 핀테크 투자] 투자건수는 감소했지만, 메가 딜은 증가

핀테크에 대한 총 투자활동 (VC, PE and M&A)

2014 - 2019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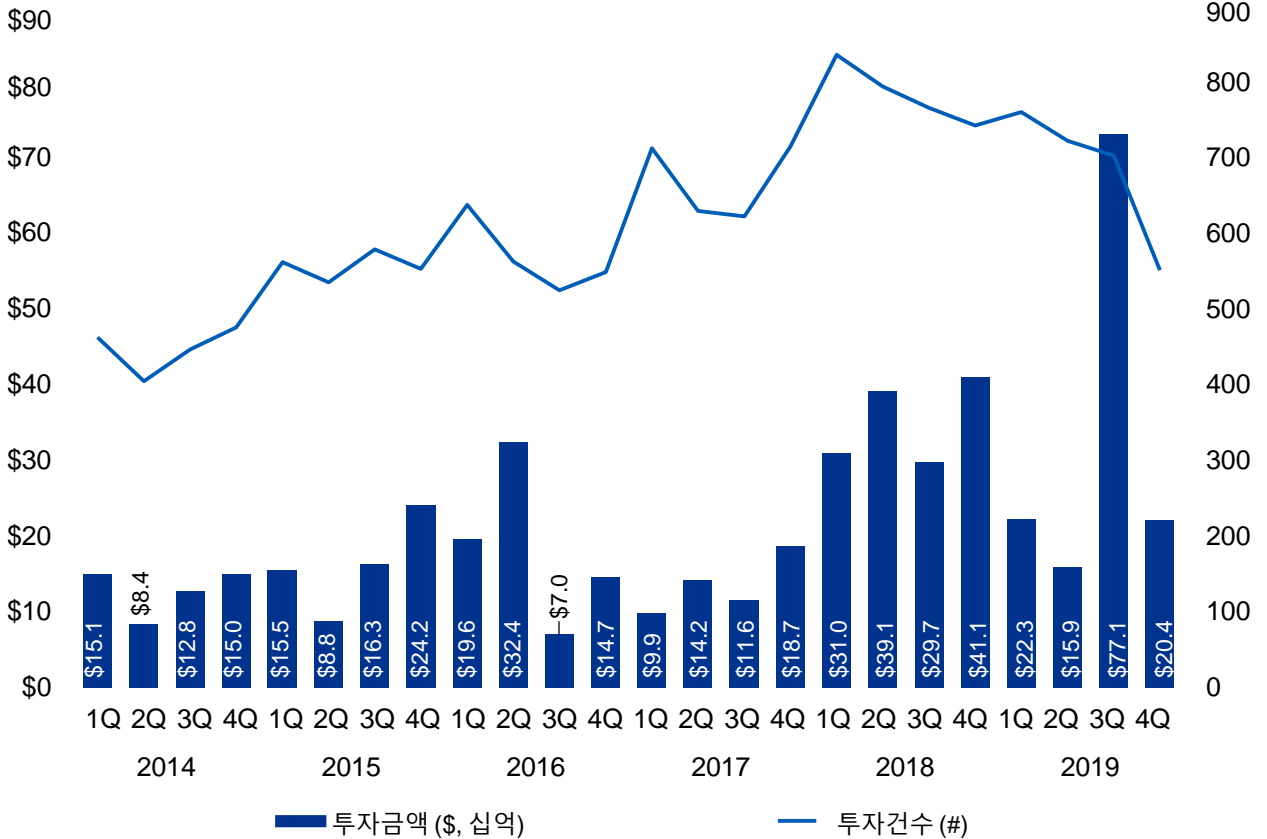
Note: 데이터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방법론 참조

2019년은 핀테크 관련 전세계 투자건수는 감소했지만, 메가 딜은 증가하여 핀테크 역사상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해 중 하나였습니다. 핀테크 생태계 전반에 걸쳐 핵심 핀테크 기술의 발전 및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관심 있는 금융기관들이 M&A를 확대하였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 '19년 3분기 투자금액 사상 최대치 기록

핀테크에 대한 총 투자활동 (VC, PE and M&A)

2014 - 2019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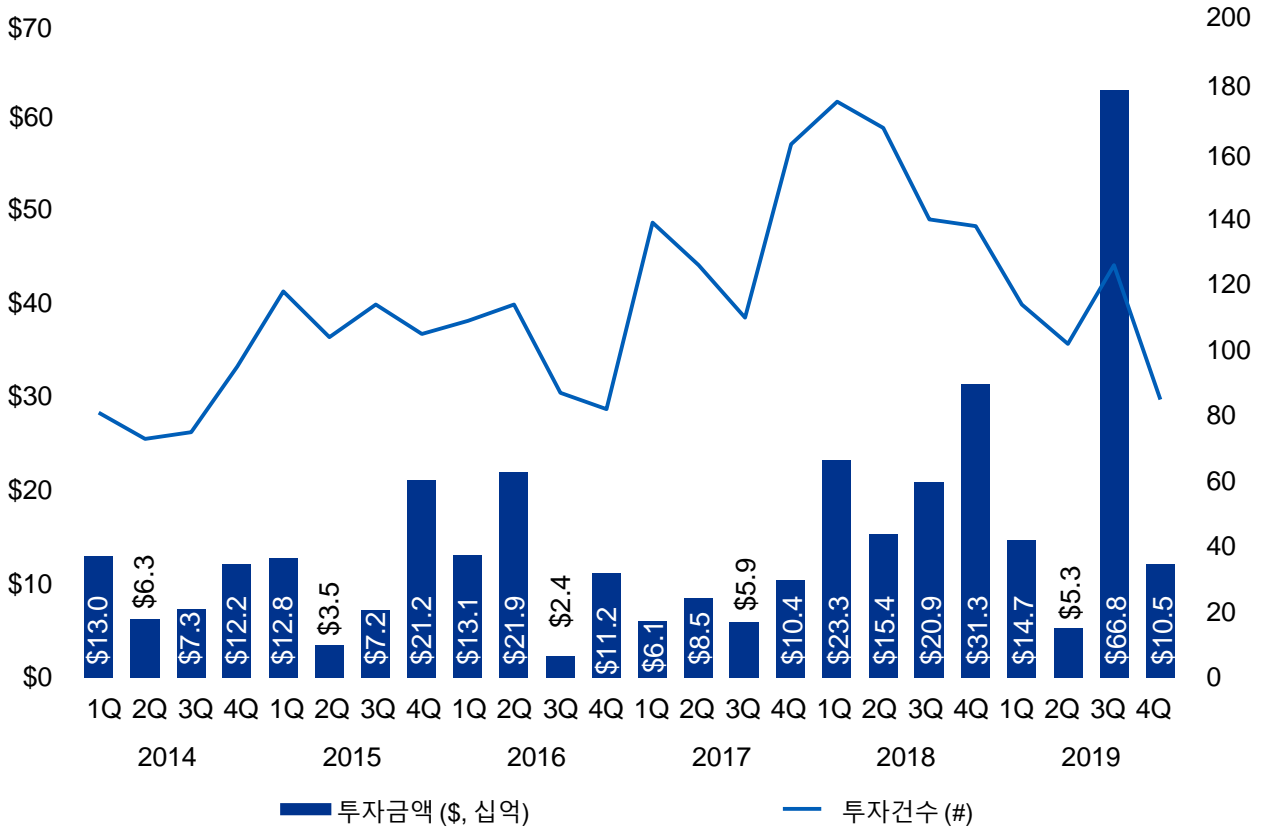
Note: 데이터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방법론 참조

2019년 3분기 핀테크 투자금액은 771억 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의 절반 가량이 2019년 7월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FIS)가 425억 달러에 Worldpay를 인수한 것에 기인하지만, 전반적으로 2019년의 핀테크 투자는 견고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 2019년 M&A 투자금액 신기록 달성

핀테크 관련 글로벌 M&A 활동

2014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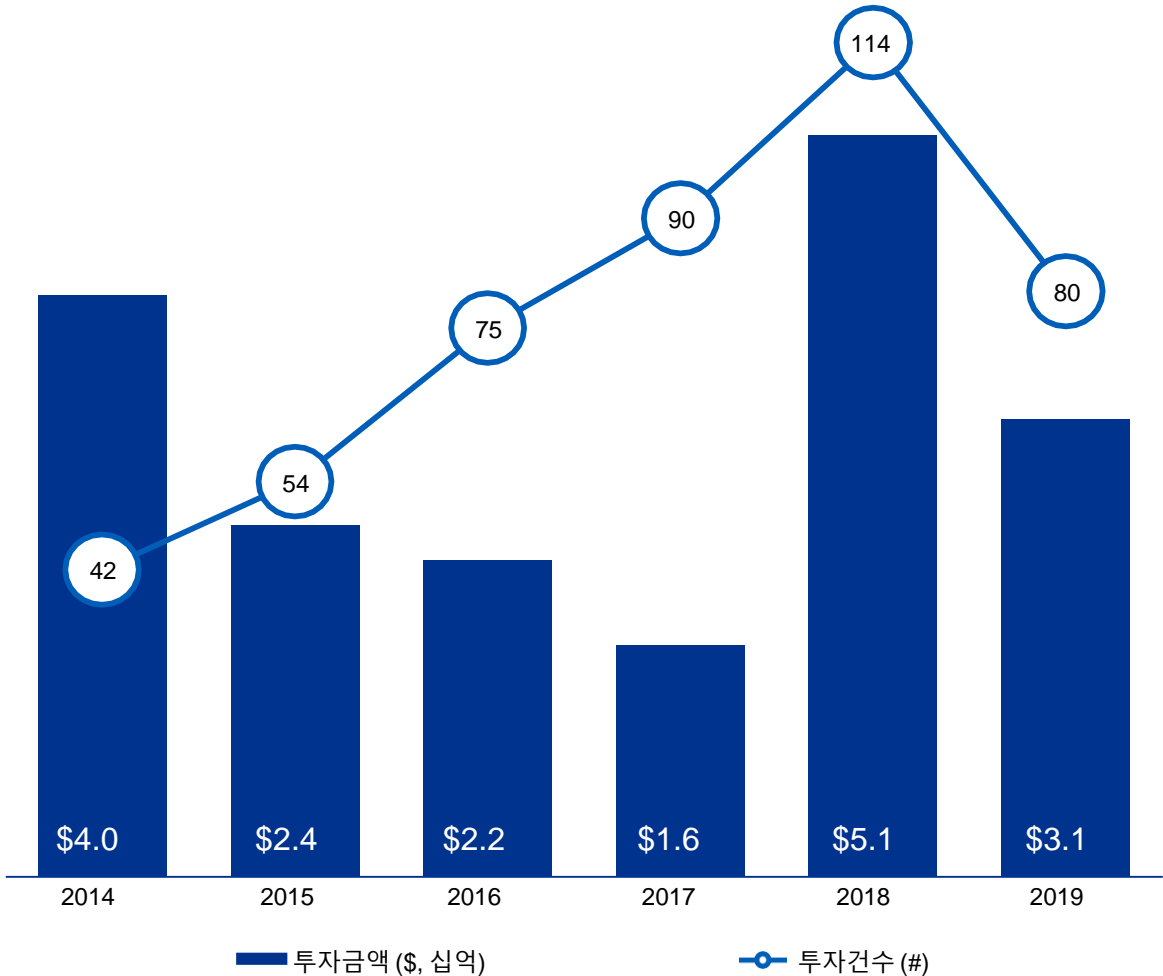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M&A 투자건수는 2018년 초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9년에는 연평균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급결제와 같은 성숙도가 높은 부문에서 메가딜이 진행됨에 따라 M&A 투자금액은 2019년 3분기에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 핀테크에 대한 PE 투자 감소

핀테크 관련 글로벌 PE 투자활동

2014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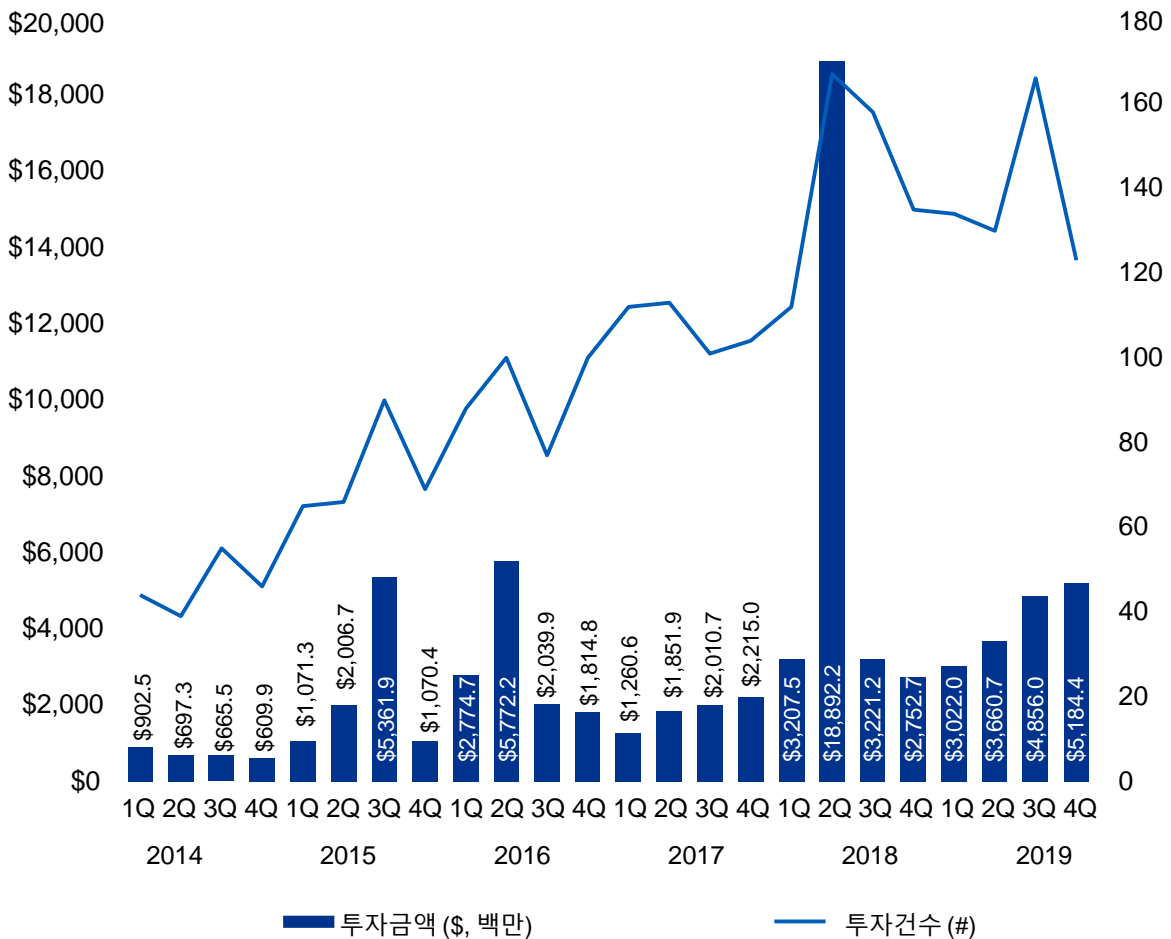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지난 5년간 핀테크에 대한 PE의 투자는 점점 증가하여 2018년 총 투자 규모는 51억 달러(114건)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2019년에는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모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거래량에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 VC는 여전히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

핀테크 관련 글로벌 벤처캐피탈(VC) 투자활동

2014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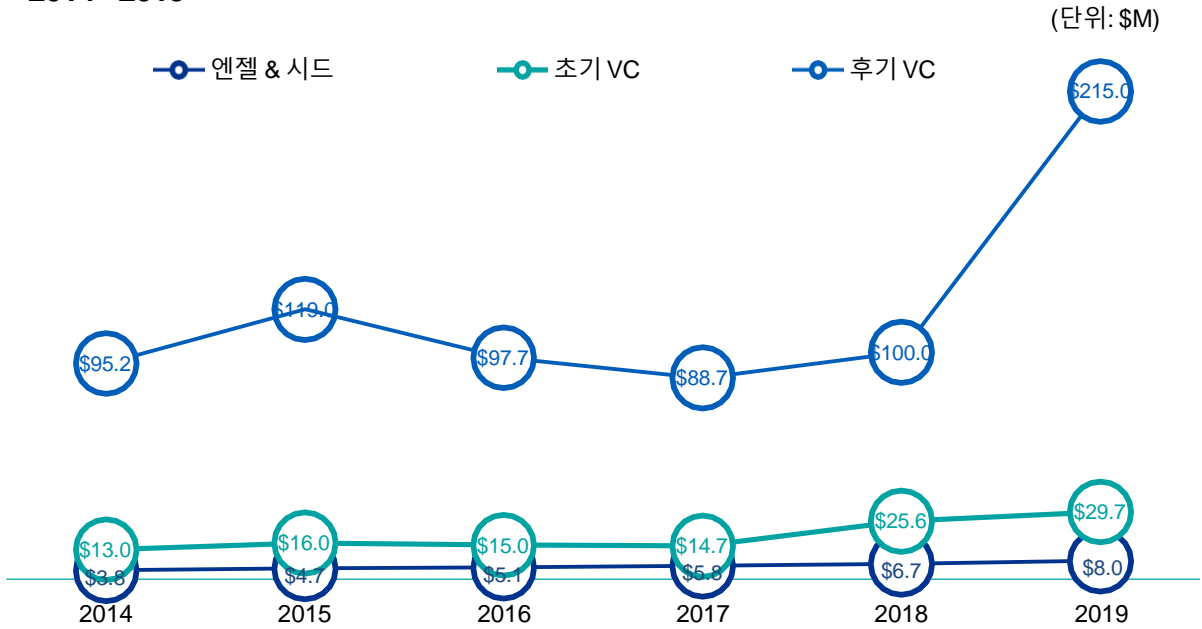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비즈니스 기회 및 혁신, 경쟁력 등 핀테크가 가진 특성 때문에 다른 산업분야보다 금융업에서의 VC의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두드러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VC의 투자건수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투자금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 VC·M&A 투자 중위값은 최고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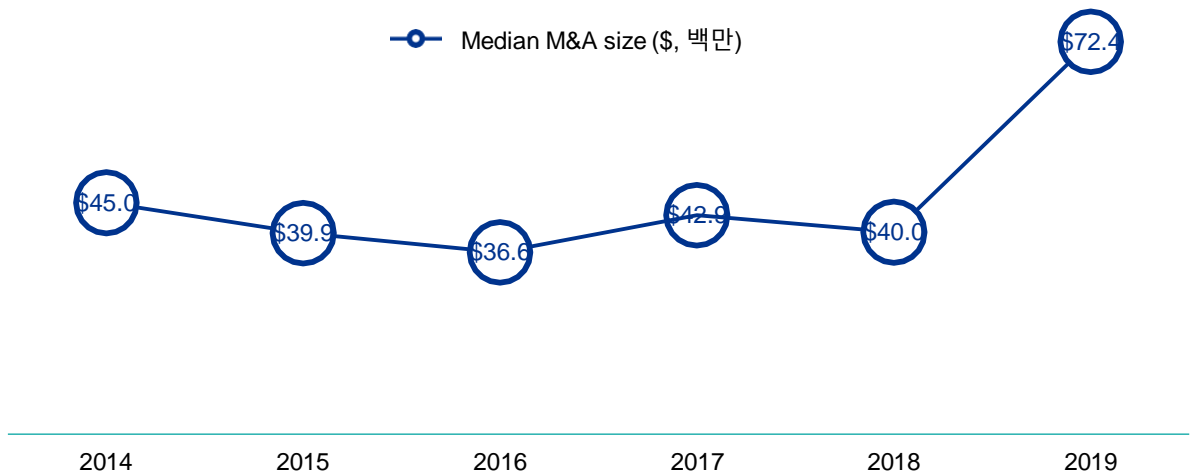
핀테크 단계별 글로벌 벤처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ation) 중위값*

2014 - 2019



핀테크 관련 글로벌 M&A 투자액 중위값

2014 - 2019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data provided by PitchBook), as of 31 December, 2019.

Note: Median 값이 크다는 것은 투자 규모의 대형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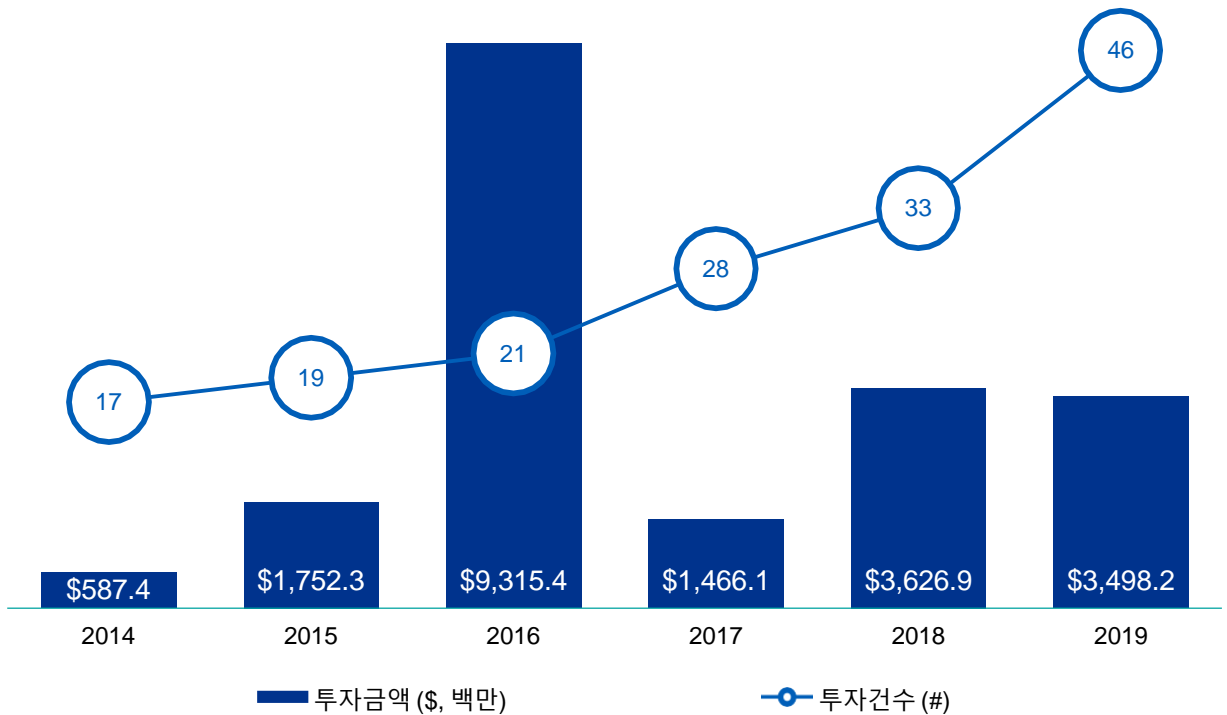
섹터별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Tech Giant] 빅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핀테크 투자

핀테크 관련 빅테크 기업의 민간투자(VC, PE and M&A)

2014 - 2019



빅테크 기업의 핀테크 투자건수	
기업	투자건수(VC, M&A)
Alphabet	65
Tencent Holdings	49
Alibaba Group	22
Microsoft	14
Amazon.com	8
Baidu	7
IBM	3
App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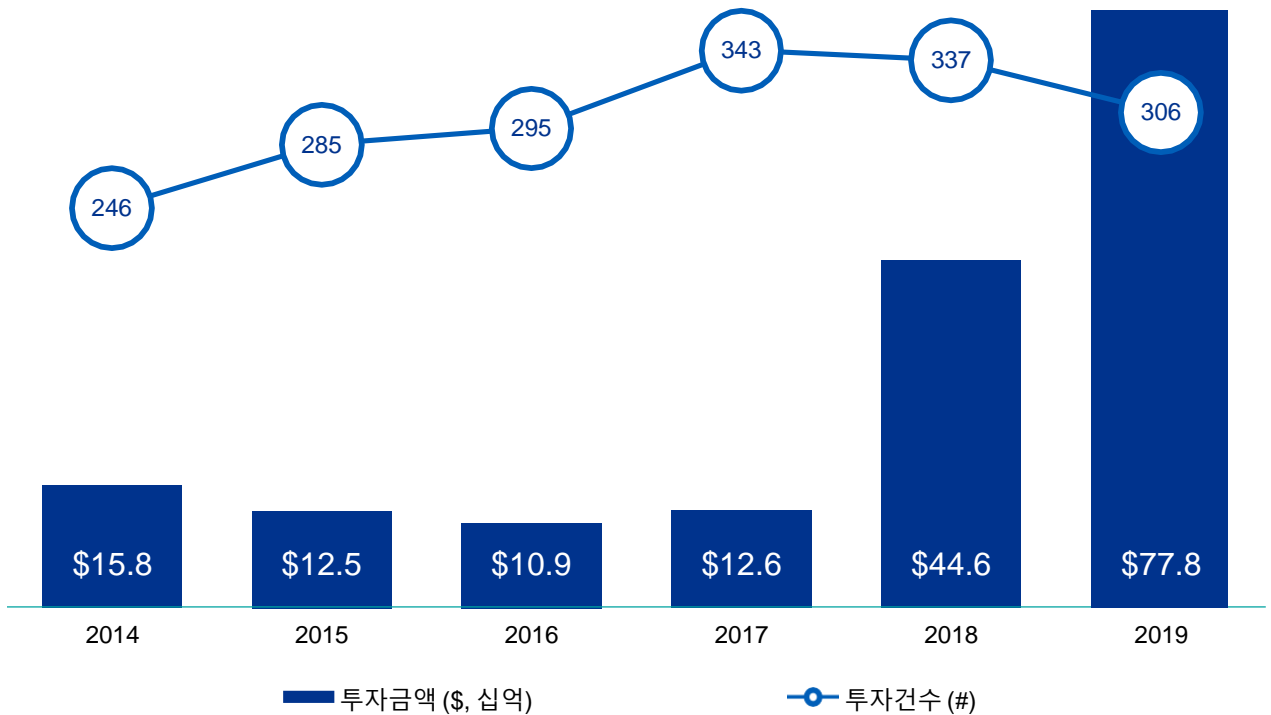
빅테크 기업(Big Tech)으로 불리는 대형 IT 기업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핀테크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감행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상당한 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핀테크가 성숙함에 따라 대형 IT 기업들은 핀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거나 핀테크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과 편의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Note: 투자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집계

[Payment] 지급결제, 2019년 정점을 기록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민간투자(VC, PE and M&A)

2014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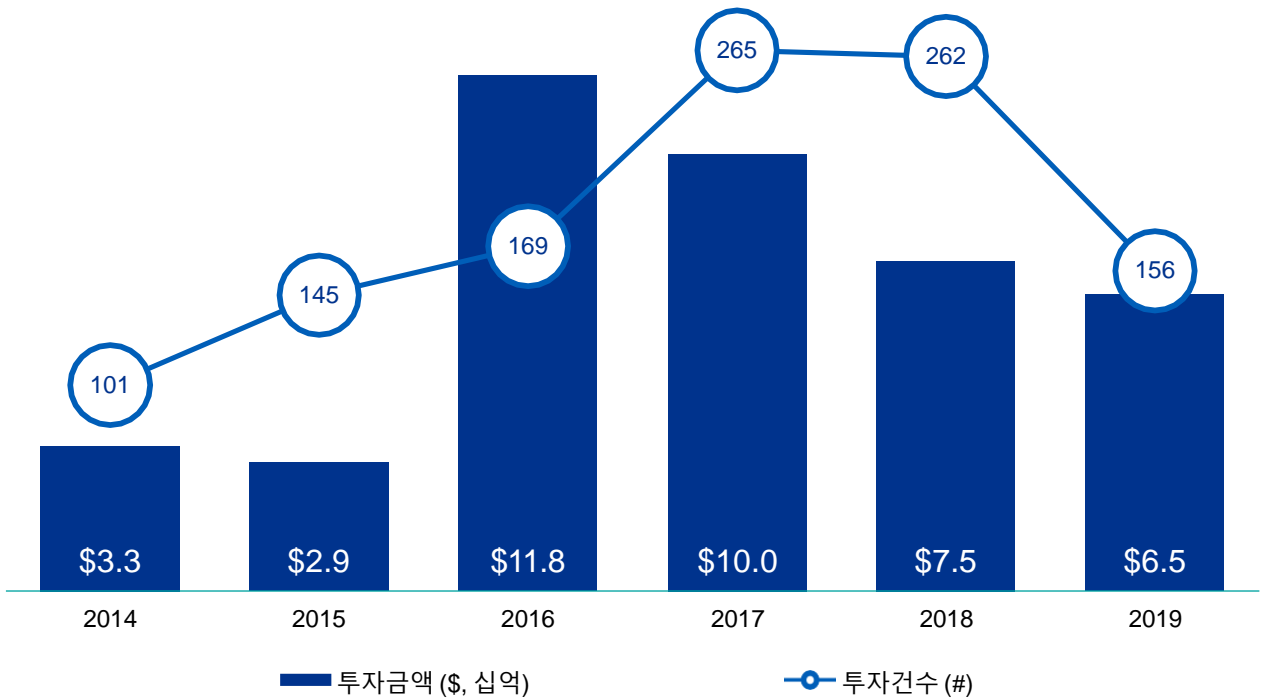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지급결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2018년, 2019년은 모두 최고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투자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 2년 간 총 투자금액은 기록적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기업들과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최고의 모바일 지급결제 기능을 탑재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지급결제 부문 핀테크 기업에 대해 이미 수많은 M&A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InsuTech] 성숙 단계에 접어든 인슈테크

인슈테크 관련 글로벌 민간투자(VC, PE and M&A)

2014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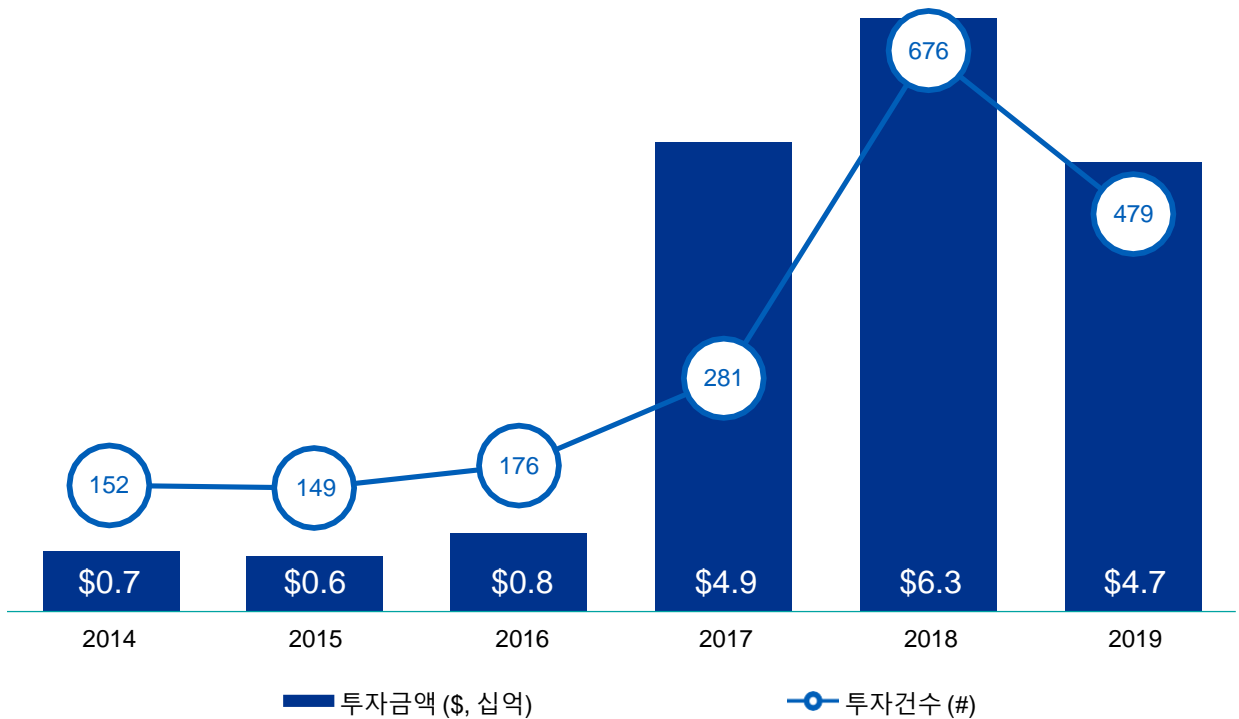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인슈테크 분야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초기 단계의 자금 조달은 감소하고 M&A 위주의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인슈테크 분야의 투자 투자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메가 딜의 영향으로 총 투자금액은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시장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인슈테크에 대한 투자가 2020년에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Blockchain] 아직까진 미완성인 블록체인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민간투자(VC, PE and M&A)

2014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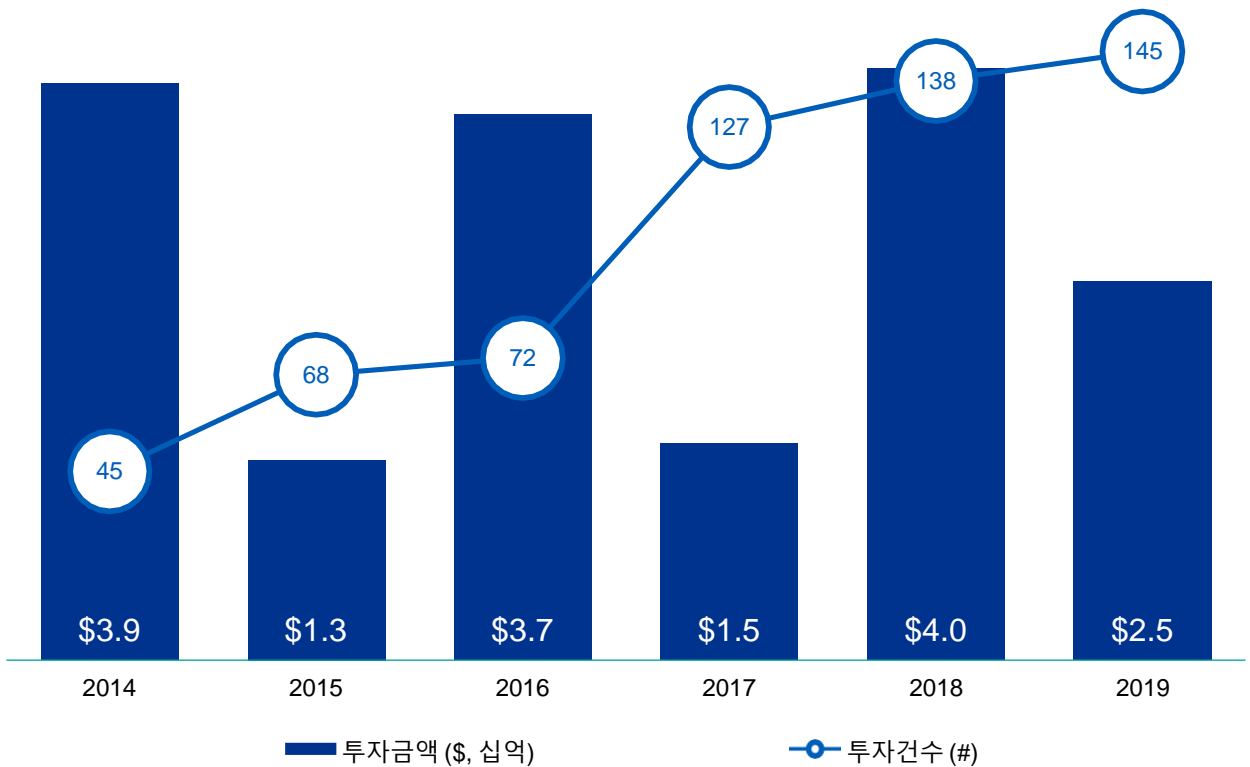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2018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의 블록체인 관련 투자는 초반 완만하게 시작하였으나 후반에 메가 딜이 이루어져 총 투자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투자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잠재력은 높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규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아직은 상용화되기 어려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이 얼마나 클지 지켜보아야 하지만, 해당 분야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견고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egtech]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는 레그테크

레그테크 관련 글로벌 민간투자(VC, PE and M&A)

2014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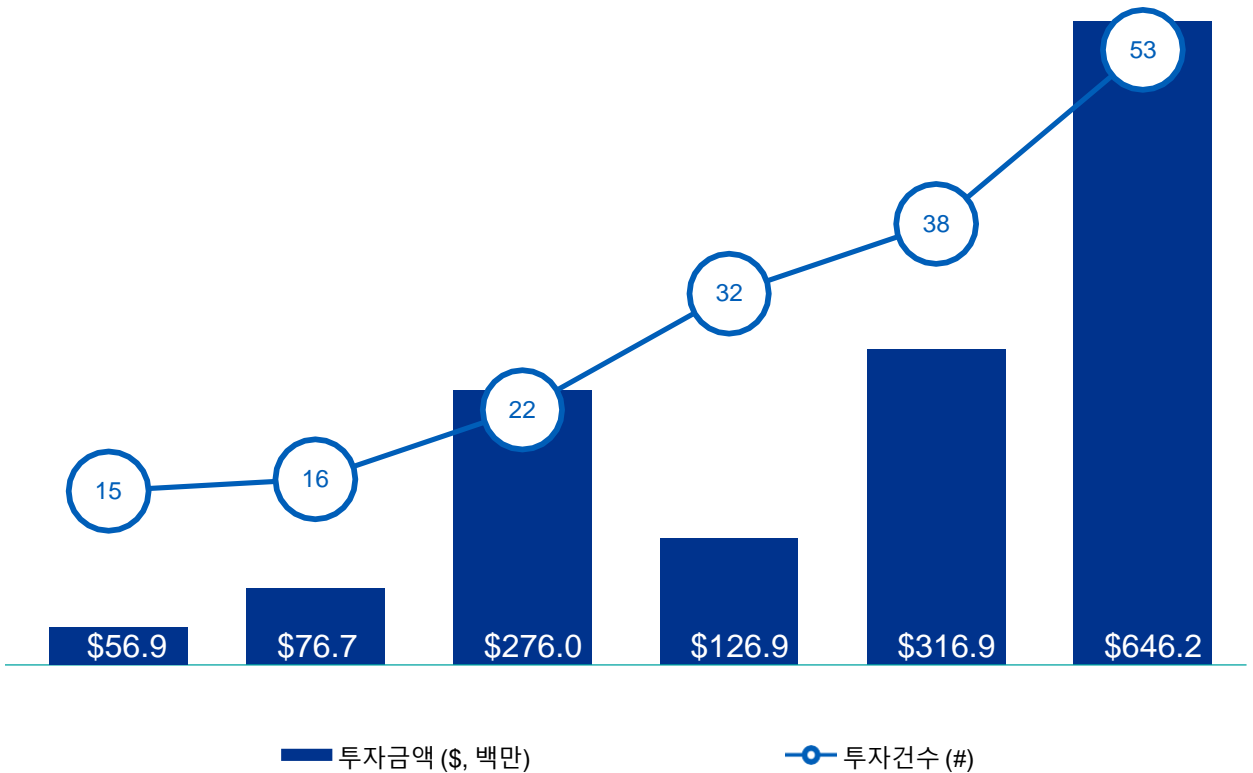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투자 또는 M&A 대상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레그테크는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비록 연간 투자금액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지만,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덕분에 레그테크는 지난 3년 간 투자건수는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금융규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레그테크의 컴플라이언스 자동화, 리스크 모니터링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Cybersecurity] 큰 성장세를 보인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관련 글로벌 민간투자(VC, PE and M&A)

2014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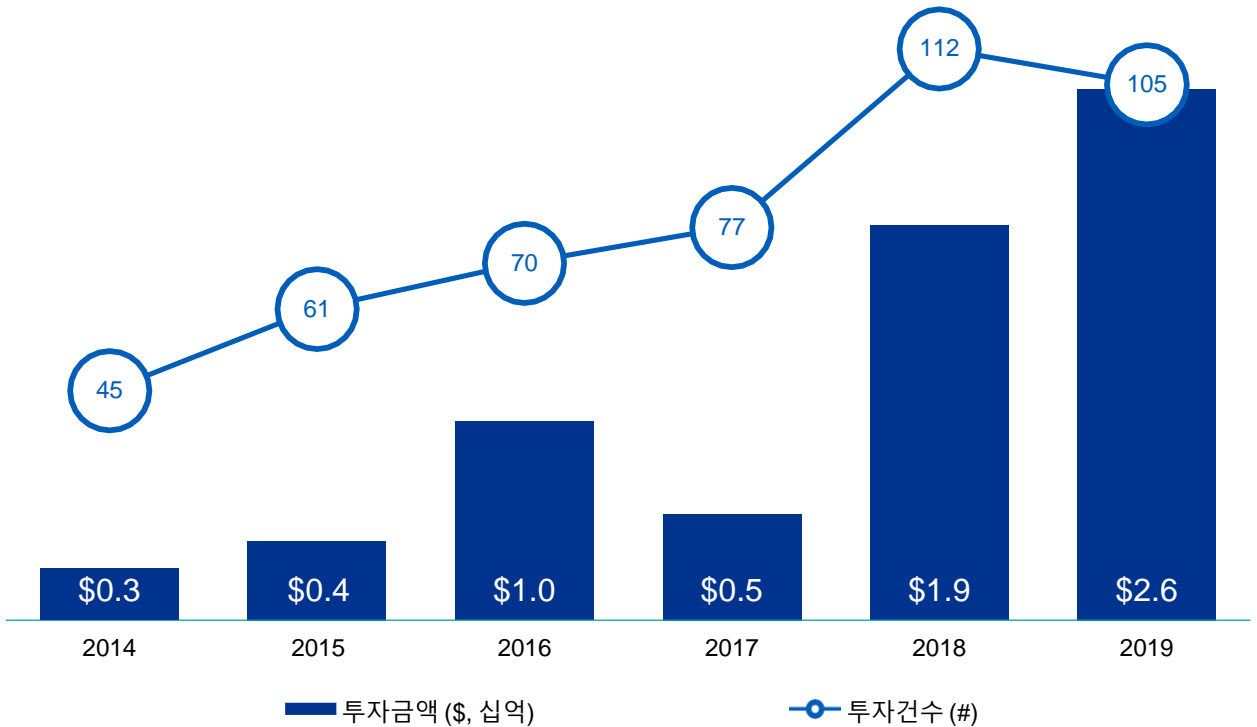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다른 핀테크 분야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보안은 6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투자건수도 5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보안 솔루션은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안 위협이 정교화되면서 보안의 중요성 역시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보안 부문은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PropTech] 역대 최고 투자유치를 달성한 프롭테크

프롭테크 관련 글로벌 민간투자(VC, PE and M&A)

2014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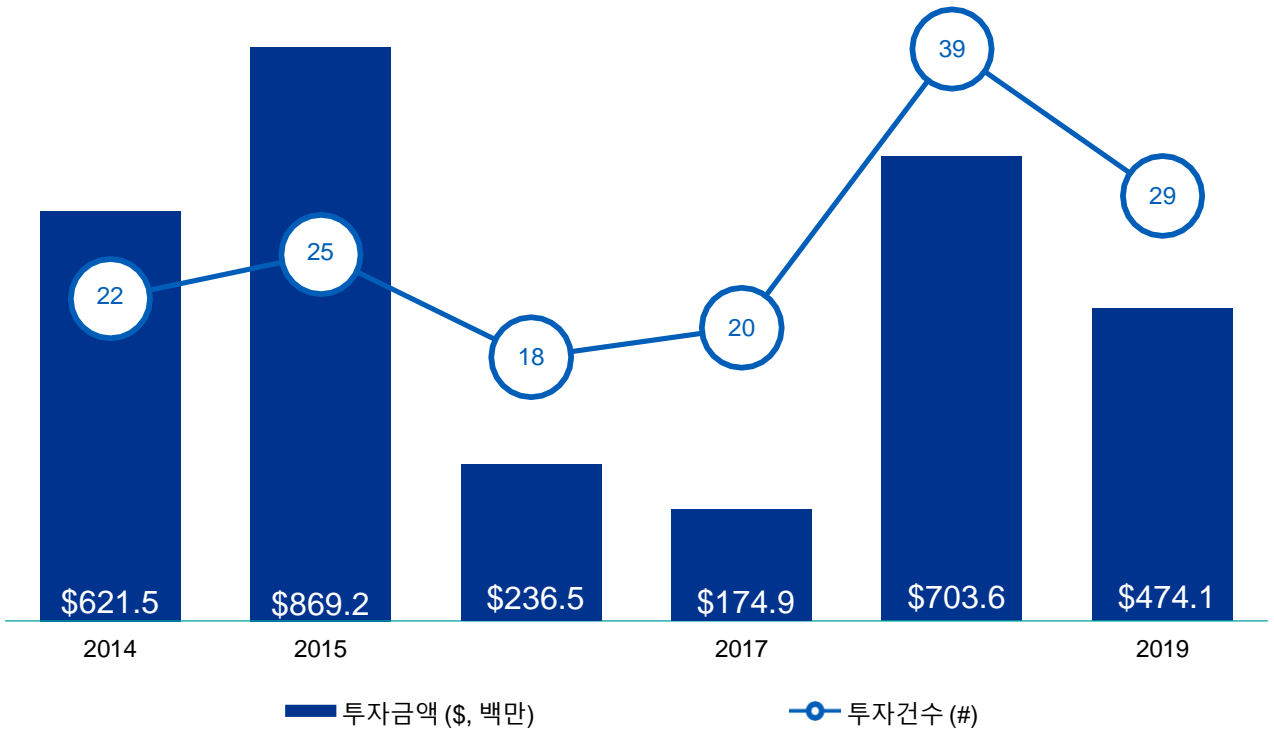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지난 2년간 프롭테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급등하면서 투자 규모도 계속해서 최고점을 갱신해왔습니다. 2019년의 투자건수는 2018년에 비해 약간 낮아졌지만, 프롭테크를 통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시도하려는 부동산 및 금융회사들이 증가하면서 프롭테크의 성장 잠재력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Wealthtech] 아직까진 미미한 웰스테크 투자

웰스테크 관련 글로벌 민간투자(VC, PE and M&A)

2014 - 2019



Source: Pulse of Fintech 2019,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KPMG International (PitchBook 데이터 사용), as of 31 December, 2019.

웰스테크는 기존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할 때 다른 핀테크 부문에 비해 현재까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통계학적 정보 및 소비자 선호도 반영, 모바일 인터페이스 개선 등의 니즈가 있는 투자자들이 웰스테크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0 핀테크 10대 트렌드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는 2019년 한해 동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오픈뱅킹이 의무화되고 있고,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AI와 블록체인 등의 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0년 핀테크에 대한 10대 예측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핀테크 투자의 지속적 증가:** 투자자들이 성숙 단계의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집중함에 따라 거래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사업 모델 및 수익 창출이 가시화된 핀테크 기업에 초점을 맞춘 거래가 증가할 것입니다.
- 2 **핀테크 서비스의 확장:** 핀테크 및 네오뱅크는 틈새시장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너지, 통신 등)로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 3 **핀테크 활용 지역의 확장:**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기존 핀테크 주요 시장 이외에도 더 많은 지역, 국가에서 핀테크가 활용될 것입니다.
- 4 **빅테크(Big Tech)의 부상:** 알리바바, 알파벳, 애플, 텐센트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은 그들의 생태계를 통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핀테크 분야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머징 마켓에 진출하여 영향력 확대를 노릴 것입니다.
- 5 **네오뱅크의 확대:** 홍콩과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더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은행(네오뱅크)을 채택하여 은행의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 6 **성숙한 핀테크 기업의 타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성숙한 핀테크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신생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 7 **파트너십 확대:** 전통 금융기관,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 간의 파트너십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파트너십은 고객 중심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형성되고 조정될 것입니다.
- 8 **데이터 개방의 확대:** 오픈뱅킹은 은행을 넘어 보험, 자산운용 등과 같은 다른 금융업권 또는 에너지, 통신 등의 산업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 9 **금융 서비스 리번들링(Re-bundling):**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금융 서비스가 리번들링(재종합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 10 **사이버 보안의 부상:**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이 보안·고객인증 관련 솔루션을 직접 구축하기보단 핀테크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관련 핀테크 기업은 더욱 부상할 것입니다.



Spotlight on fintech

제휴: 윈-윈(Win-Win) 전략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오늘날 금융산업은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금융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고,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변화는 알리바바, 애플, 구글, 텐센트 등과 같은 대형 IT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기회에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더욱 통합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높은 규제의 부담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적 제휴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제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략적 제휴 구축

빅테크 기업은 이미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텐센트는 영국의 오픈뱅크 API 서비스 기업인 TrueLayer에게 3,500만 달러의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 예금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씨티은행·스탠포드 연방신용조합(Stanford Federal Credit Union)과 제휴하였습니다. 애플은 애플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골드만 삭스와 제휴하는 등 지난 6개월 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적 제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휴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과 제휴를 고려하는 금융기관은 성공적인 제휴를 위해 다음의 4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① **명확한 제휴 목적:** 빅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② **민첩성 확보:** 빅테크와 협력 시 속도는 중요한 요소이며, 은행 경영진은 조직의 민첩성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③ **필요한 기술·역량 확보:**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인력 확보, 시스템 개발·유지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 ④ **실행은 대담하게:**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은 강한 비전을 가지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Spotlight on fintech

금융산업 내 사물인터넷 적용의 확대(IoT)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제조·통신업에서부터 병원·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IoT를 도입하는 속도는 더디지만, 보험·자산관리 같은 분야에서 IoT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당면 과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금융기관들이 IoT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변화가 시작됨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은 IoT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업계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용 IoT 디바이스(예, 스마트 시계 등)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지만, 데이터 수집 관련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IoT 활용을 위해 금융기관은 애플, 구글, 삼성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보안 관련 복잡성을 증대시킵니다.

당면 과제와 해결책

IoT 관련 개인정보 보호·보안 이슈가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생체인식(Biometrics) 기반의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제시됨에 따라 금융산업 내 IoT 기술 채택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단기적으로는 모바일 기기에 집중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스마트 기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예상 트렌드

자산운용 분야는 건물 관리에 IoT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가장 선도적으로 IoT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분야도 IoT를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보안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보험사들이 이미 제공 중인 커넥티드(Connected) 자동차 보험과 유사한 IoT 기반의 보험 상품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은행업은 IoT를 채택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분야로 예측되지만, 빅테크 기업들과의 제휴가 늘어남에 따라 IoT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 Fintech 전문 서비스팀

조재박

전무

T: 02-2112-7514

E: jaeparkjo@kr.kpmg.com

김세호

상무

T: 02-2112-7879

E: seihokim@kr.kpmg.com

벤처캐피탈 전문 서비스팀

김이동

전무

T: 02-2112-0343

E: yidongkim@kr.kpmg.com

원정준

상무

T: 02-2112-0549

E: jungjunwon@kr.kpmg.com

kr.kpmg.com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